

## 전남 인구 다시 가파르게 감소

### 올들어 6045명 급격히 줄어 190만명선 마저도 붕괴 우려

한동안 둔화하는 추세였던 전남도 내 인구 감소폭이 다시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6000여명이 줄어 190만명선 마저 위협하고 있다.

기업유치와 고용여건 개선으로 내심 '200만명 회복'을 기대해온 전남도의 인구 정책에 또 다시 비상이 걸린 것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남도에 주민등록 인구는 190만6959명(외국인 제외)으로, 2009년 말 191만3004명에 견줘 6045명이 감소했다.

이는 전남지역 인구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70년 이후 최저치다. 특히 지난해 한해 동안 5996명 줄어드는 데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인구 감소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전남도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구 200만 전남'은 커녕 조만간 190만명선도 붕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전남 인구는 지난 2002년(205만4204명)의 경우 전년에 비해 4만5104명이 줄었으나 2005년에는 1만8987명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어 2006년에는 2만4280명으로 감소폭

이 다소 커졌다가 2007년 1만3089명, 2008년 1만836명, 지난해에는 5996명으로 점차 둔화되는 추세였다.

전남도는 올해 초만 해도 '인구 200만명 회복 희망이 보인다', '2300개 기업 유치 및 8만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크게 반겼다.

그러나 지난해 말 191만3004명이었던 주민수는 올 1월 191만1991명, 2월에는 191만346명으로 줄었고 3월 191만1010명으로 다소 늘어나는 등 5월까지 증감을 거듭하다가 이후 6월(1510명 감소), 7월(1025명 ), 8월

(1781명 ) 등 3개월간 무려 4316명이 빠져나가는 등 '뿔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가파르게 줄면서 전남도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기업유치 및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쏟는 한편, 행복마을을 조성 하고 도시민 유치활동을 벌이면서 1인당 30만원의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썼는데 결국 실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

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전남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200만명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리모 델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중심 정책 추진이 인구 이동의 가장 큰 요인 아니겠느냐"면서 "기업 유치 및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에 힘을 모으면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여수세계박람회 등의 이벤트로 전남이 정착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가꾸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군복무 21개월로' 국방부 조정 추진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을 2014년 까지 18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하는 정책을 수정해 21개월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원유철(한나라당) 국방위원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신갈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당정에서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년 2월 임명자부터 적용되는 21개월에서 복무기간 단축을 동결하는 쪽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 참석자는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육군 복무기간은 21개월, 해군과 공군은 각각 23개월과 24개월이 된다.

김 장관은 대도시 주변 16개 공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방폐장을 유지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공군기지 이전 대상 지역에 적절한 보상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장기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어르신 봉사단 발대

27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0 어르신 봉사단 발대식'에서 800여명의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다짐하며 환호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되는 어르신 봉사단은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보조교사, 환경지킴이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화정주공, U대회 선수촌 조성 순항

### 삼성·대림 등 대기업 재건축 의향서 잇따라 제출 염주주공도 내달까지 주민 동의서 접수 완료 전망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및 지원시설 조성사업이 순항중이다. 선수촌 부지인 서구 화정 주공아파트에는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지원시설 부지인 염주 주공아파트의 경우 애초 우려와는 달리 주민 동의서 접수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도시공사와 화정 주공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대림·한양 등

에서 조합에 재건축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조합 측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협의 절차를 마친 뒤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참여 시공사가 없어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화정 주공 재건축에 탄력이 붙게 됐다.

지원시설 부지로 결정된 염주 주공 아파트는 이달 말까지 전체 1118세대 중 500세대로부터 소유자 인감, 주민등록초본, 공증 위임장, 각서 등을 받아 광주시도시공사에 제출할 방침이다.

염주 주공 주민대표 김농권(48)씨는 "지금까지 세입자를 제외한 300세대로부터 서류를 받았으며, 주민들의 참여 열의도 높아 다음달까지는 대부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는 화정·염주 주공의 요청으로 애초 이달 말까지였던 주민동의서 확보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 간 논란이나 마찰 없이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이 조치했다"며 "올해 안에 시공사 선정, 주민 동의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전체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지난 1983년 부지 면적 19만4112㎡에 2900세대가 들어선 화정 주공은 광주U대회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850m 떨어져 있다. 또 1985년 건설된 염주 주공은 300m 떨어져 있으며 9만174㎡에 111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알림 日 나오시마 미술기행

地中美術관 일대 10월15일까지 선착순 40명 모집



여행의 계절 가을을 맞아 광주일보사가 (사)광주미술관(회장 김응서)과 함께 버려진 섬에서 예술의 낙원으로 거듭난 일본 나오시마 지중(地中)미술관 일대 문화여행을 떠납니다. <관련기사 12면 참조> 나오시마 섬(直島)은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땅속에 미술관과 호텔을 설계한 독특한 컨셉으로 유명한 곳으로 매년 전세계에서 50만 명이 찾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클로드 모네, 앤디워홀 등 거장들의 명작이 한데 어우러진 미술관 벨트는 작고 외진 섬을 글로벌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킨 기적의 현상입니다.

올 가을 아름다운 자연과 거장들의 예술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문화 여행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일정 및 코스: 10월22일~25일(3박4일), 다카마쓰 시립미술관~나오시마 지중미술관~이우환 미술관~이에 프로젝트~오카야마 오히라 미술관~고라쿠엔 정원~오카야마시~히로시마 등
- 모집인원: 선착순 40명
- 신청마감: 10월15일까지
- 참가비: 145만원
- 주최: 광주일보사·(사)광주미술관
- 주관: 하나투어 유니버시스항공
- 후원: 일본 오카야마현
- 접수 및 문의: (062)522-2255(하나투어 유니버시스항공)

光州日報社

##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 컷오프

### 조용진씨 추가 4명으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경선 예비후보로 애초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선정한 김선욱 전 광주시의원과 박해자 호남대 교수, 송갑석 전 전남대총학생회장 외에 조용진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로써 민주당 서구청장 재선거 경선후보는 하루 만에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관련기사 5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천심사위원회의 1차 압축과정에서 탈락한 예비후보 중 면접 점수가 우수한 원과 박해자 호남대 교수, 송갑석 전 전남대총학생회장이 여성과 청년 가산점을 받기 전 면접을 본 14명의 예

비후보 중 점수가 상위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재심위원회는 조 전 실장 등 1차 압축과정에서 탈락한 11명의 예비후보들이 제기한 재심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조용진 대변인은 "탈락 예비후보들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제기한 재심은 이유가 없어 기각했다"며 "다만,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컷오프를 통과했을 예비후보를 경선 대상 후보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선욱, 박해자, 송갑석, 조용진 예비후보 등 4명을 상대로 TV토론을 한 뒤 여론조사(시민당 당원 각 50% 반영)를 거쳐 오는 30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별한  
\*객실: 전 객실 50% 할인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돌잔치: 숙박권증정 및 파티키 할인  
\*찰순연·각종 세미나 (대·중·소연회장 완비)  
이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억울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 고충민원 110 ·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 부패신고 1398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출동!!!

국민권익위원회가 소통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 이동신문고 상담일정 |

구분	화순군	합평군	영광군
일시	9월 29일(수) 10:00~17:00	9월 30일(목) 10:00~17:00	10월 1일(금) 10:00~15:00
장소	군청 신관 회의실 (4층)	군청 대회의실 (5층)	군청 대회의실 (3층)
상담분야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복지·노동, 농림·환경, 산업, 도로·교통, 재정·세무, 행정·문화, 법률상담, 부패신고안내		

※이동신문고는 지역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소통창구입니다.